

<동정자료>

김현미 장관, “이재민에게 임시 거처·주택복구비 지원” 도로·포항역지진대피소 찾아 이재민 위로…국민안전·신속한 복구 강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7일(금), 포항시 일대 지진 피해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재민들에게 LH 임대주택 등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주택도시 기금 등을 활용해 주택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포항역사와 포항IC교의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한 후 포항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아 직접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지진대피소를 찾아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 김 장관은 먼저 포항역사를 방문하여 열차운행계획과 시설물 복구 계획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 포항IC교를 방문하여 피해교량의 교량받침 손상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신속한 보수와 함께 다른 손상은 없는지 유의하여 점검 할 것을 주문했다.
- 다음으로, 지진에 의한 손상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한 아파트를 찾은 김 장관은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주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포항시에 요청했다.

-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인근에 있는 지진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이재민 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LH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진 피해가 심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일부 주택 거주자 분들을 위해 160세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160세대 외에 더 많은 임시 거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주택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택복구비 지원 요청 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민 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사고 수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7. 11. 17.

국토교통부 대변인